

## 제9과 진리에 귀 기울이라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진리에 귀 기울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세대보다 많은 정보를 듣는 세대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귀중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진리의 소리’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 1. ( ) 듣는 사람들

#### 1) 우리가 ( )

세상에는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적 사유체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쉽게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은 나름의 생각의 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다음 시대라는 뜻인데, 과학문명이 발달하던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사람들은 과학문명이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온 인류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공통된 사유체계라는 기초아래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인 패러다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성 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고’, ‘소수의 의견은 다수를 위해 희생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가치가 존재한다고 인정했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시대적 사유체계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이성주의, 절대주의, 다수의 결의는 진리’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문명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과학문명은 고도로 발달된 무기들만을 양산하게 되고, 여러 전쟁으로 인해 인류는 더욱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핵폭탄은

과학문명이 유토피아가 아닌, 인류의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사람들은 모더니즘에 반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더니즘이 갖고 있던 특성들인 ‘이성주의, 절대주의, 다수의 결의는 진리’에 반하여 ‘감성주의, 상대주의, 소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생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모더니즘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는 것이 힘’이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캐치프레이즈는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 2) ( ) 속에 갇힌 시대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주의’의 가치 속에 ‘절대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어차피 상대적이고 상황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의 특징들이 극단적으로 분리되고 나뉘는 것이 이런 현상들의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하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베(일간베스트) 회원들의 글들이나, 지나치게 좌측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의 시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한 그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3-4)**

---

→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을 두는 것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부분은, 이 세대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 3) ( )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선택해서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가치관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관이나 가치관은 그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지식들의 산물입니다. 얼마든지 나쁜 신앙관과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도 그 가치에 부합하는 말씀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와 나의 관점이 부딪히면, 성경의 관점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을 편협하게 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편식이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듯 편향된 말씀들은 영적 생활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기우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려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주의 시대 가운데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다보니, 여러 가지 나쁜 진리라고 말하는 가치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해석과 접근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새로운 말씀'이 '거짓 진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의 가르침이 내가 믿고 있는 진리와 다르다면 우리는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와 다른 말씀을 들으면 '신선하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빠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갖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려 해도, 우리의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2. ( )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 1) (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왜 들어야 하나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5-17)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20-21)

---

---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쓰기 한 책인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26)

---

---

2) ( )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취향대로 골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14-16)

---

---

→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편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부담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찢리는 말씀을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3.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1) ( ) 기울이라

그 첫 번째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신명기 28:1-2)

---

---

→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는 것이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 2) ( )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훈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29-31)

---

---

---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3-14)

---

---

3) 진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 )  
들으라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가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단의 사설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한단든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한 ‘동성애’를 미화한다든지, 이런 것들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외에 다른 것에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경계’를 지나치게 일상적 삶에서의 고지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딱 막힌 사람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역에서는 확고’해야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한 없이 유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진리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1-4)

---

---

---

##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